

태국의 최근 정치 지형 변화 배경과 전망

- 2024년 8월 태국은 최대 야당 해산, 총리 해임, 신임 총리 선출 등 급격한 정치 변동이 발생함.
- 8월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개혁 정당이자 최대 의석 정당인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해산과 주요 당직자들의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했으며, 8월 14일 세타(Srettha) 총리의 탄핵을 선고함.
 - 총리 해임 후 8월 16일 태국 국회에서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 선거를 실시했으며 연립 여당 후보 프어타이당 대표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이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 [정치 지형] 2023년 총선에서 개혁진보 정당 MFP는 최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을 위한 연정 구성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며,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군부 및 보수정당과의 연정 구성에 성공해 집권에 성공함.
- MFP는 군부 퇴진, 왕실 개혁 등 개혁 아젠다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및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 151석을 확보해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으나 총리 선출 상하원 합동 선거에서 376석 확보에 실패함.
 - 2023년 태국 국회는 하원 500석과 상원 250석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전원 군부가 임명해 군부의 지지 없이는 총리 선출이 어려운 구조임.
 - 반면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은 군부 및 보수정당과의 연정에 성공해 집권에 성공하고 세타 타워신 전총리를 제30대 총리로 선출함.
 - 총선 과정에서는 MFP와 함께 반군부 및 정권교체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했으나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친군부 및 보수정당과 연합함.

표 1 태국의 2023년 총선 정당별 의석 확보 개요

정당명	지역구	비례	합계	비고
전진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MFP, Move Forward Party)	112	39	151	군부퇴진·왕실개혁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 Pheu Thai Party)	112	29	141	친탁신
품짜이타이당(พรรคภูมิใจไทย, Phumchai Thai Party)	68	3	71	보수·포퓰리즘
팔랑쁘라차랏당(พรรคพลังประชารัฐ, PPRP)	39	1	40	친군부(2019년 집권)
루엠타이쌍창당(พรรค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 UTN)	23	13	36	친군부(2021년 창당)
민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ตย์, Democrat Party)	22	3	25	범보수, 반탁신
기타	24	12	36	10석 미만 정당 합계

자료: 이재호(2023) p.5 발췌·인용.

- [최대 정당 MFP 해산] 총선 후 보수 진영은 MFP를 왕실 개혁 공약을 왕실모욕죄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7일 MFP 정당 해산과 주요 당직자들의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함.
- 태국 군부 및 보수진영은 왕실 수호를 쿠데타 및 정권 수립 명분으로 활용해왔으며,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개혁 인사들이 형법 112조 왕실모욕죄 위반 혐의로 구금된 바 있음.
 - 2024년 8월 7일 해산 명령 후 MFP 소속 의원 143명은 원외 정당인 틸까카오차오윌라이당(Thinkakhaochaovilai Party)에 가입하고 정당명을 국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ชน, People's Party)로 변경함.
- [총리 해임과 신임 총리 선출] 8월 14일 세타 총리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해임되었으며, 8월 16일 같은 당 패통찬 친나왓 총리가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 2024년 5월 상원 40명이 총리실 장관(한국의 비서실장)에 뇌물 전과를 보유한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총리 해임을 청원했으며, 헌법재판소는 8월 14일 헌법이 정한 신의 위반(ethics violation)을 사유로 5:4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함.
 - 총리 해임 직후 각 진영으로부터 후속 총리 후보를 신청 받아 8월 16일 상하원 합동 선거를 치른 결과 기존 연립 여당 후보인 패통탄 친나왓이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 탁신 前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신임 총리는 2021년 10월 프어타이당의 고문으로 정계 입문, 2023년 10월 프어타이당 대표를 거쳐 2024년 8월 16일 총리에 선출됨.¹⁾
- [정국 전망] 패통탄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와 정치적 지향이 유사한 인물로 기존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탁신 前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정세 안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태국은 역사적으로 정치 갈등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 MFP 해산과 국민당에 대한 추가 해산 시도가 있을 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사면된 탁신 前총리도 왕실모욕죄 혐의가 있으며, 신임 총리에 대한 배후 활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의 여지가 존재함.
 - 태국 정당법은 외부인의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인사는 최대 징역 10년형도 가능함.

 이재호 선임연구원

1) 탁신 전총리는 2006년 9월 18번째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을 상실했으며 약 15년에 걸친 해외도피 생활 후 2023년 8월 귀국 후 형량이 8년→1년으로 감면되었으며 막내딸 패통탄 총리 선출 하루 후 사면됨.